

단일치아 결손시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 증례

구철회*, 양홍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단일치아 결손시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 증례 임플란트 보철치료는 완전 무치악 환자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단일 치아 결손시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단일 치아 결손시 통법의 치료로는 3본 고정성 보철물, adhesion bridge가 사용되었으나 pontic이 갖는 비심미성, 청소성의 어려움과 인접 자연치의 삭제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런 경우 임플란트가 최선의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심미적인 임플란트 수복을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지지할 만한 충분한 양의 골이 존재하여야 하며, 또한 보철물 장착 후 자연스러운 치관형태를 만들 수 있고 인접치아의 치은연이나 치간유두와 조화를 이룰수 있는 충분한 양의 연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치아 결손은 잔존치조골의 흡수와 치간유두의 소실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인접 지지 조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심미적인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임상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번 증례에서는 단일 치아가 결손된 3명의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심미적인 수복을 하였고 cemented type의 보철물을 변형시켜 retrievable한 보철물을 제작하였기에 보고하는바이다.